

전도관 역사는 구세주를 출현시킨 역사였다(2회)

박태선님과 조희성님의 상관관계

연재 순서

- 제1편 내용 요약
1. 전도관의 박태선님과 승리제단의 조희성님
 - 1) 전도관의 박태선님
 - 2) 승리제단의 조희성님
 2. 박태선님과 조희성님의 상관관계
 - 1) 이사가 7장 14절
 - 2) 목시록 12장 1-6절
 - 3) 시편 2편
 - 4) 목시록 2장 26절
 3. 엄마, 영모님
 - 1) 박태선님의 발자취
 - 2) 엄마소리와 소 울음소리
 - 3) 소 울음소리의 실제인 박태선 영모님

지난호에서 박태선님과 조희성님의 인적사항을 간략하게 요약하여 보았다. 그리고 두 분은 동서양의 예언서에서 매우 존귀한 분으로 예언되어 있음을 알았다.

그렇다면 두 분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 결론부터 말한다면 영모(靈母)와 아들(靈子)이다. 두 분의 관계를 조명하는 것은 실로 난해한 문제를 풀어야 할 해답을 얻는 것과 같다.

1) 이사가 7장 14절

“보라 동정녀가 임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미쳐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라(사 7:14~15).”

이는 예수가 구세주라고 목청을 높여 말할 때 잘 쓰는 성경 구절로써 구세주인 예수는 날 때부터 흠과 티가 없이 깨끗한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주장하는 핵심 구절이다.

그런데 이 구절을 유심히 읽어보면 구세주도 태어나실 때에는 죄인의 몸으로 태어나심을 알 수가 있다. 즉 ‘그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 때’라는 내용은 죄인으로 태어난 구세주가 자기를 짓기에는 도를 닦아 악을 버리고 선으로 승리하시게 되어 있다는 뜻이다.

인간의 몸 자체가 죄의 몸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에 사람 몸을 입은 이상 죄의 굴레 속에 있는 것인데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원리를 알지 못하고 예수는 날 때부터 죄가 없는 의인이라고 비과학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는 성령으로 임태되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구세주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처녀가 어떻게 아들을 낳는다는 말인가?

그렇다면 처녀가 임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성경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靈)의 말씀이지 육(肉)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처녀가 임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말씀도 영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다음의 말씀을 생각해 보자.

2) 목시록 12장 1-6절

“하늘에서 큰 이적이 보이니 한 여인이 있어 해를 옷 입듯하고(목 12:1) “이 여인이 아이를 배어 해산할 때가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을 때에(목 12:2) “하늘에서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한 큰 붉은 용이 있어(목 12:3) “용이 해산할 여인 앞에서 해산하기를 기다려 그 아이를 삼키고져 하더니(목 12:4절 중반) “여인이 아이를 낳으매 곧 남자라 장차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릴 자니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옮기더라(목 12:5) “그 여인이 도망하여 광야로 가매 하나님이 저를 위하여 예비하신 곳이 거기 있으니 1260일 동안 그 곳에서 양육을 받으리라(목 12:6)”

위의 성경구절 역시 영적인 말씀이다. 여기서도 이사가 7장의 말씀과 같이 ‘한 여인이 아들을 낳는다’고 했을 뿐 아이 아버지인 남자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짝이었다(사 34:16)고 하였으므로 이사가 7

장의 말씀과 목시록 12장의 말씀은 “여인이 혼자 아들을 낳는다”는 말씀이므로 서로 짝이 맞는 말씀이 된다.

먼저 첫 구절에서 “해를 옷 입듯 했다”는 것은 빛 자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가리킨다. 두번째로 “이 여인이 아이를 배어 해산할 때가 되매 아파서 부르짖을 때” 했는데 이 말씀 역시 영적인 말씀으로 구세주를 배출하기 위해 해산의 수고를 하시는 영적 엄마인 하나님을 가리킨 것이다.

“용이 있어 해산할 여인 앞에서 해산하기를 기다려 그 아이를 삼키고져 하더니”한 것은 하나님이 구세주를 해산하려고 하시니 용 마귀가 그 구세주를 죽이려고 계획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며, “여인이 아들을 낳으매 곧 남자라 장차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릴 만왕의 왕이요 인류의 구세주가 되시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 여인이 도망하여 광야로 가매 하나님이 저를 위하여 예비한 곳에서 양육을 받으니”는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곳에 보내어, 즉 밀실(密室)에 숨겨서 키운다는 것이다.

위의 성경구절을 상고한 바와 같이 구세주라는 존재는 태어나자마자 그냥 구세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사람 몸을 입었다는 것은 죄의 탈을 쓴 것이기 때문에 죄의 탈을 벗어야 의인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영적 엄마)이 아들(靈子)을 예비한 곳인 밀실(密室)로 보내 인간의 탈을 쓰게 한 원죄인 ‘나’를 죽여 없애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해산의 수고를 하니 그 아들(靈子)이 구세주로서 완성이 된다고 한 것이다.

3) 시편 2편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 내가 가라사대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네게 열방을 유업으로 줄 것이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내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깨뜨림이여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시편 2:7-9).”

이 말씀도 역시 영적인 말씀이다. 앞서 상고한 바와 같이 영적인 어머니 하나님이 영적인 아들 구세주를 낳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구세주에게 내가 너를 낳았다고 말씀하시고 있다. 전 세계의 열방과 모든 소유를 내게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질그릇을 깨는 것같이 부수리라고 하셨다.

4) 목시록 2장 26절

“이기는 자와 나중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리니 저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같이 하리니(목 2: 26-27)”

위에서 살펴 본 이사가 7장, 목시록 12장, 시편 2편의 구절은 처녀·여인·하나님이 아들을 낳는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목시록 2장 26절의 말씀에는 처음으로 (이긴자)란 표현을 사용했다. 목시록 12장에서는 “여인이 낳은 아들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을 주신다”고 했고 또 시편 2편에서도 “하나님이 낳은 아들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을 주신다”고 하였다. 성경은 다 짝이 있다(사 34:16)고 하였으니 ‘여인이 낳은 아들’과 ‘하나님이 낳은 아들’이 다 ‘이긴자’임을 알 수가 있다. 그와 같이 연결하니 이기신 하나님이 구세주가 된다

는 결론이 나온다. 여기서 ‘이겼다’는 것은 죽음의 신 마귀와 싸워서 이겼다는 것을 말한다. 이로 인하여 구세주님은 인류로 하여금 사망에서 영생으로 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 놓으신 것이다.

위의 설명한 내용을 통하여 아들을 낳은 여인은 박태선님이요 여인이 낳은 아들은 조희성님임을 독자들은 눈치 채을 것이다.

3. 엄마, 영모(靈母)님

‘동정녀가 아들을 낳는다’는 성경구절은 분명 구세주에 대한 예언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이 말씀을 동정녀 마리 아를 통하여 낳은 아들 예수를 지칭하는 예언이라고 육적(肉的)인 해석을 하는 기독교 교리의 오류가 분명 밝혀져야 한다. 앞서서도 언급한 것 같이 하나님 말씀은 영적(靈的)인 말씀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어떻게 해석되어야 할 것인가. 앞에서는 성경구절을 틀어 예수가 구세주가 아님을 설명하였으니 지금부터는 우리나라 선각자 중 한 분인 남사고(南史古) 선생의 격암유록을 중심으로 구세주의 출현 모습을 찾아보기로 하자.

남사고 선생은 우리나라가 배출한 최고의 선각자로서 전 세계 유명 예언자 중에서도 최상에 올려놓을 수 있는 위대한 인물이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남사고 선생의 어록(語錄)을 중심으로 이 엄청난 숨겨진 비밀을 정확하게 파헤쳐서 참 구세주의 본체를 정확하게 만천하에 드러내 보자.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언급하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에서 소위 민족 종교를 표방하는 많은 종교인들이 한결같이 주장하는 것으로서 ‘소 울음소리 나는 곳에 구원이 있다’라는 말인데, 더욱이 민족종교인들은 다들 하나같이 자기가 신봉하는 종교가 ‘소울음 소리 나는 곳’의 본고장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기회에 그들에게도 ‘소 울음소리의 실제’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려주고자 한다.

1) 박태선님의 발자취

박태선님은 1956년에 서울 원효로에 이민제단을 건축하고 1957년에 소사 제1신앙촌을 건설하고 1962년에 덕소 제2신앙촌을 건설하고 또 1970년에 기장 제3신앙촌을 건설하였다. 이처럼 전무후무한 신앙 혁명을 일으킨 박태선님은 평범한 종교부흥사일 뿐인가! 그런데 박태선님이 전개한 종교 활동 가운데에는 평범한 신앙부흥사라고만 생각하기에는 납득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다. 전도관의 외형적 성장과는 무관한 듯 보이는 박태선님의 종교활동을 볼 때 더욱 그렇다. 박태선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그분의 종교적 사명은 무엇인가?

박태선님의 전도관 역사(役事)가 날로 번창하여 무려 150만 명에 이르는 교세를 갖게 되었을 때 한편에서는 참으로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으나 느닷없이 박태선님을 보고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보통 ‘감람나무 장로님’으로 호칭되던 박태선님을 갑자기 ‘엄마’라는 호칭으로 바꿔 부르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겨우 말을 배우기 시작한 어린아이에서부터 연세가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에 이르기까지 박태선님을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했는데 ‘엄마’라는 호칭은 순식간에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세상에 이처럼 우스꽝스러우면서도 경이로운 일도 없을 것이다. 어디서나 박태선님이 보이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엄마’라고 부르면서 달려가곤 하였다.

박태선님은 처음에는 당황해 하시면서 “주책 좀 작작 부러!” 하고 야단을 치곤 하셨다. 그러나 박태선님이 아무리 야단을 쳐도 이 ‘엄마’라는 호칭은 수그러들지 않고 더욱더 맹렬히 전국 방방곡곡으로 울려 퍼졌다. 결국 박태선님도 당시 스스로를 “이 엄마가” 하시면서 “주책 좀 작작 부러!” 하고 야단을 치곤 하셨다. 이후부터 박태선님은 자신이 ‘엄마’라고 자칭(自稱)하셨다. 더욱이 박태선님은 “이 엄마가 해산의 수고를 한다”고 공식적으로 표현하시기 시작하셨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은 비밀이 있다. 해산의 수고를 하시는 ‘엄마’라든 임태하여 해산하는 대상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분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은 신령한 도의 뜻을 먹어서 그 많은 무리들을 키우니 ‘엄마’라고 생각하였다.

먼저 격암유록을 살펴보자. 격암유록에는 소 울음소리가 나는 곳의 실체가 밝혀져 있다.

2) 엄마소리와 소울음소리

三神山下午鳴地 牛聲猿聲始出天民
삼신산하우명지 우성냥자시출천민
世論時世론시
삼신산 아래에 소 울음소리가 나는 땅이 있다. 소 울음소리로 낳자한 이곳이 하늘의 백성이 처음 출현하는 곳이다.

해설 : 삼신(三神)이 계산 곳 즉 소래(蘇來)산과 노고(老姑)산 사이에 있는 소사 범박동과 계수동에 제1신앙촌인 ‘소사 신앙촌’을 건설하시고 그 곳으로 전국에서 ‘엄마’ 하고 부르는 열성 교인들이 속속 입주하기 시작하니 소사 신앙촌은 ‘엄마’ 소리로 천지가 진동할 정도였다. 바로 이 곳이 하늘의 백성이 처음 나오기 시작하는 장소라고 남사고(南師古) 선생은 기록해 놓고 있다.

一心合力全家族이 弓乙村을 찾아보소
일심합력전가족 궁을촌
牛聲之村見不牛로 人言一大尺
우성지촌견불우 언인일대척
八村을 恨心하다 草路人生 弓乙村을
팔촌 한심 초로인생 궁을촌
모르거든 呼天村을 先尋後에
호천촌 선심후
呼母村을 更問하소 - 出將論
호모촌 경문 출장론
일심합력 전 가족이 궁을촌을 찾아보시오. 우성지촌(牛聲之村) 즉 소 울음소리 나는 촌에 가보니 견불우(見不牛) 즉 소는 보이지 않더라. 바로 이곳이 신천촌(信天村) 즉 신앙촌(高仰村)이라는 곳이다. 한심하다 초로같은 인생들이 궁을촌을 모르거든 호천촌(呼天村) 즉 하나님을 부르는 촌을 먼저 찾은 후에 호모촌(呼母村) 즉 ‘엄마’라고 부르는 촌을 다시 물어 찾아보시오.

해설 : 소 울음소리 나는 촌에 가보니 소는 보이지 않더라. 이곳이 바로 신앙촌인데 이곳의 소 울음소리는 진짜 소의 울음소리가 아니라 소 울음소리와 같은 소리인 신앙촌 사람들이 박태선님을 ‘엄마’라고 부르는 소리이다. 그래서 신앙촌이 ‘소 울음소리 나는 촌’이니 일심합력 하여 전 가족이 호모촌 즉 ‘엄마’라고 부르는 촌, 즉 신앙촌을 찾으라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예언하고 있다.

面面村村牛鳴聲 - 生初之樂
면면촌촌우명성 생초지락
면면촌촌우명성 생초지락

牛聲在野啼魚聲中 非雲真牛畜消息에
우성재야啼魚聲중 비운진우희소식
牛聲在野 十勝處엔 牛鳴聲이
우성재야 십승처 우명성
狼藉하고 - 歌舞總論
남자 가사총론
소 울음소리가 온 들판에 울려 퍼지는데 이 소리는 ‘엄마’라고 부르는 소리이다. ‘엄마’라고 부르는 소리 속에 구름이 없는데도 진리의 비가 쏟아져 내리는 희소식이 있다. 소 울음소리가 온 들판에 울려 퍼지는 십승처엔 엄마라고 부르는 소 울음소리가 남지하고...

해설 : 소 울음소리가 들판에 짝 깔려서 울려 퍼지는데 이 소리는 ‘엄마’라고 부르는 소리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 이곳 ‘엄마’라고 부르는 곳에서는 구름 한 점 없는 속에 진리의 비 즉 이슬 같은 은혜가 내려 인류 역사 이래 처음으로 하늘의 백성이 출현하는 최고의 희소식이 있는 곳이라고 예언하고 있다.

이 소 울음소리로 표현되는 ‘엄마’라고 부른 박태선님의 예정된 사명은 과연 무엇이었는가?

다음호에 계속



도덕경 해설

絶聖棄智 절성기지

도덕경 19장 해설

도에서 멀어진 인간이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의를 세우고 지혜를 구하지만 결국, 인간 사회에서는 위선과 권모술수만이 만연하게 되었다. 게다가 혈육간에도 불화하게 된 것은 물론이거니와 나라와 사회가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을 앞 장에서 살펴보았다. 이 장에서는 어찌하여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는가 하는 과정을 파악하고, 이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마치 잡초를 제거하려고 하지만 그 뿌리를 없애지 않고 밖으로 드러난 무성한 순간 제거하려는 어리석은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해시키고자 한다. 인간의 근본 뿌리가 되는 참 본성을 회복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인간적인 예의범절과 인의를 덧씌운다한들 여전히 권모술수와 위선이 판치는 세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인간의 참 본성을 인간 내면에 갖추지 않고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거짓 ‘나’가 주장하는 가운데서는 성스러움이라든지 어찌고라든지 의로움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다 위선이고 허울 좋은 너살에 불과한 것이다. 이것을 안다면 사람은 누구든지 인간의 참 본성이 무엇이 라는 것을 알고, 이것을 회복하는 데 모든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참 본성은 인류와 만물이 다 한 근원에서 나왔다는 동질성을 깨닫는 것이다. 해서 모든 만물과 인간을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바탕에서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움직여질 때, 거짓되고 고통스런 세상이 종말을 고향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사회가 선을 세우고 기강을 확립하려 해도 되레 위선과 권모술수가 들끓는 교활한 세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19장은 바로 이러한 점을 강조하고 드러내고자 한 것이다.

道復孝慈(민복효자): 사람들에게 효성스러움과 자애로움이 회복될 것이다

되레 사람들에게 효성스러움과 자애로움이 자연스레 회복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絶巧棄利(절교부리): 기교부리는 것을 끊어버리고, 이익을 추구하는 마음을 버리면

순수본성에 의한 마음과 생각 속에 기교라든지 사사로운 이익이 끼어 들 수 없는 것이다.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자체가 나와 남을 다르게 보는 분리의식과 독립된 이질적 존재로 인식하기 때문인 것이다.

盜賊無有(도적무유): 남의 것을 훔치는 일이나 도적 같은 사람들이 없어질 것이다

순수본성에 입각한 의식 속에서는 만물과 모든 인간들을 나와 같은 존재로 여기기 때문에 남의 것을 훔친다거나 하는 도적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此三者 以爲文不足(차삼자 이위문부족): 이 세 가지의 문장이나 글로써는 다 말하기가 부족하다

어찌 인간의 거짓되고 뒤틀린 마음과 생각과 행실을 위와 같은 세 가지 글이나 문장으로써 표현하기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故令有所屬(고영유소속): 그러므로 가령 이에 덧붙이고자 한다면

좀 더 보충하고 확실하게 말을 더 하고자 한다면

見素抱樸(견소포박): 소박함이 드러나도록 하고, 겉으로 꾸밈없이 수수하고 사치스럽지 않으며

천진난만한 어린 아이와 같은 순진 무구한 소박함과 수수함이 밖으로 드러나도록 할 것이며

少私寡欲(소사과욕): 사사로운 욕적게 가지고, 과욕을 줄이는 것이다

순수본성을 견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사사로운 이익과 욕심을 버리고 없애면 자연히 회복된다는 것이다.* 김주호 기자

승리신문		1990. 3.3 등록번호 다 - 0029
발행인 겸 편집인 김중만		
본지는 구세주(정도령, 미륵불)께서 말씀하신 사람들이 실제로 죽지않는 원리(영생학)를 누구든지 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질병과 죽음이 없는 개별된 세상을 만들고 진정한 평화의 세계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행됩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안곡로 205번길 37 우 422-826 홈페이지 www.victor.or.kr	광고 및 구독신청 전화 032) 343-9985 FAX 032) 349-0202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